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안나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ffects of Mother's Beliefs and Executions in Social Relation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s

An-Na Ch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실행 수준을 살펴보고,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유아교육기관 7개소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26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패킷을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인 학력수준에 따라 전체적인 신념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행측면에서는 하위요인인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 실행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관계 실행이 타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은 모든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자녀 양육에서 유아와의 실천적 상호활동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사회관계,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신념, 실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mothers' beliefs and executions in the social relations area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eliefs and executions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 packets to 268 mothers of children aged 3-5 years who were enrolled in 7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belief according to the mother's personal characteristic, the educational level,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factor, living together, in the execu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 execution and the ability to regulate others, which is a sub-factor of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beliefs and executions in social relation were found to affect all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except for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 execution on the ability to regulate oth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parents' interest in the improvement of young children's social ability and practical interaction in child rearing.

Key Words : Social relation, Emotional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 Beliefs, Executions

*Corresponding Author : An-Na Cho(annacho@kangnam.ac.kr)

1. 서론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변화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소의 현상이 심화되며,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소통의 부족, 물질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 등의 사회적 문제[1]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는 이 시대 인재의 필수역량으로 사회관계(social relation)를 강조하였다[2]. 사회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사회적 행동과 교섭으로 타인과의 상호활동을 통하여 이뤄지며, 이는 인간적 성장과 발전을 기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개인을 사회적 완성물로 만들어준다[3]. 인간은 태어나 사회 속의 많은 관계들을 잘 유지하면서 건전한 자아를 발전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4,5].

사회관계의 향상은 사회화 과정의 한 측면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개인의 사회적 적응과 행복의 전제조건이 된다[6]. 즉,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사회관계를 배우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친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며,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 유아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7]. 따라서 개인이 한 사회 속에서 물리적,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와 가치 등을 익히며,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의 과정이 시작되는 유아기부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3,8].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9]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갖추며, 창조적 사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기르고자 추구한다. 이를 위해 5개 영역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목적과 목표를 구성하였으며, 그 중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 '사회관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영역은 유아가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며, 3개의 내용범주-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가지기-로 구분된다.

'사회관계' 영역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혼란의 가운

데에 자아발견과 자아개발을 통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환경을 학습하며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3]. 따라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관계' 영역의 실천이 강조된다[9]. 즉, 다양한 문화적 공간을 아우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연구들[10-12]에 의하면, 유아기 이후의 좋은 사회적 관계 맺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유아기에 형성된 친사회적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타인이 이로인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13-14]. 급격한 사회변화 시대에 비인간적인 행위와 따돌림, 외톨이 등과 같은 모습의 인간관계 양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특성이나 기질 등에 초점을 둔 여러 연구들[15, 16, 17-20]이 수행되었으나 연구들 간에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예로,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16], 유아의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이 서로 무관하다는 연구[17],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회,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19] 등은 다양한 환경 또는 맥락적 변수 등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가족이나 교사와 같은 환경 변인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에의 영향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21]이나 교사의 교육적 역량 수준, 교사-유아 관계와 친사회적 행동 간에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22,23]. 종합하건대, 이와 같은 연구보고들은 유아의 개인적인 변인 이외에 유아를 환경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변인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습득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Freud[24]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관계의 1차적인 대상이 되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 등이 어린 시절 초기 경험 및 일생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유아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인적 환경인 어머니의 영향력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신념, 훈육 등을 포함한 양육 관련 변인 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6,11,25,26]은 친사회적 행동의 습득이 내적요인이 아닌 외적인 것에 의해 이뤄짐을 주장한 사회학습이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보고는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선행된 관련 국외연구들[27,28]에서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신념, 가치 등과 같은 인지적인 매개 요소가 유아의 성장이나 발달적인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나누기, 돕기, 타인 리더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기술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녀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목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와 같이 '사회적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덕목 함양에 대한 개념 인식과 적극적 실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2013년 시행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 내용의 중요성 인식과 실행에 대한 교사와 부모 두 집단의 비교 연구[29]에서는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사회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인식과 실천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점이나 부모 및 교사의 인식과 실시정도의 차이를 살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성을 고려해보는 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등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회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행정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은 정서적인 측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30].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정서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대인관계를 통해 이뤄진다[31-33]. 즉, 개인의 정서 이해와 조절, 타인의 감정 인식 및 공감과 같은 정서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 및 표현하

고, 효과적으로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으로서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EQ)'[31]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지보다는 정서가 결정적 요소로 여겨지고, 인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서지능(EQ)[34]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다수가 진행되었다.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들일수록 대인관계 기술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1,35,36]. 친사회적 행동을 하려면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입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긍정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유아들은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반응을 하므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반면, 유아의 정서지능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감정조망수용능력이나 사회적 자아개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8]. 종합하건대, 정서지능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요인으로써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숙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서로 간의 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유아시기[39]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험을 통해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갈등의 조정 및 활용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34]. 이와 관련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정서지능, 부모의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다수 이뤄졌으나 대부분이 각 변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유아를 둘러싼 사회 환경 내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관계'에 대해 부모의 인식과 실시 정도가 자녀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교육에 관련된 부모의 관심과 실천적 접근을 향상시키는 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사회적 기대와 가치

를 파악하고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과적인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있어 1차적인 인적 환경요인이 되는 어머니의 사회관계에 관한 신념과 실천 정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사회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행이 자녀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 유아의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7개소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26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33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279부가 회수되어 85%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부실 기재된 11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268부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퍼센트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39세가 136명(50.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어머니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 중 79.1%(212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유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율이 각각 51.1%, 48.9%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 150명(56.0%), 여 118명(44.0%), 연령은 3세 109명(40.7%), 4세 88명(32.8%), 5세 71명(26.5%), 자녀의 소속기관은 어린이집 96명(35.8%), 유치원 172명(64.2%)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 관련 신념 및 실행 각각 12문항, 유아의 정서지능 평정척도 31문항,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측정 도구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8

Variables		f	%
Mother's age	<35	92	34.3
	35-39	136	50.7
	40-44	38	14.2
	45>	2	0.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2	11.9
	college graduate	70	26.1
	bachelor	142	53.0
	master	24	9.0
Working status	working	137	51.1
	nonworking	131	48.9
Child's gender	Male	150	55.0
	Female	118	44.0
Child's age	3	109	40.7
	4	88	32.8
	5	71	25.5
Enrolled institution	day care center	95	35.8
	Kindergarten	172	94.2
TOTAL		268	100.0

2.2.1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 신념 및 실행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중에서 민주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관계' 영역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가정에서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 및 내용범주와 관련한 어머니의 인식, 즉 이에 대한 신념의 정도 여부를 살펴 보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 5세 유아사회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행 비교 연구[29]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관계 영역은 총 3개의 내용범주로 구분되며, 총 1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내용범주인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는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외 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범주

에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외 5개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용범주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외 2개의 내용이 포함된다.

사회관계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Likert 형식의 5점 평정척도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유아교육 전공교수 1인과 현 유아교육기관장 2인과의 협의 하에 설문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2인의 교사에게 의뢰하여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

2.2.2 유아의 정서지능 평정 척도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yer와 Salovey[40]에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된 '정서지능 체크리스트'[41]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인식 및 표현 7문항, 자기조절 8문항, 타인인식 7문항, 타인조절 9문항, 총 4개의 하위요인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정을 위한 요인 분석 과정에서 타인인식 1문항과 타인조절 및 대인관계 4문항이 제외되어 총 25개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자기인식 및 표현능력은 자기의 현재 감정과 기분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걱정스러울 때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 등이다.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예로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타인인식능력은 공감 및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상황을 잘 안다' 등이다. 타인조절능력은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예로 '다른 친구를 자기가 하고 있는 놀이에 참여시킬 줄 안다'와 같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형식의 5단계 평정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정서지능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82~.86으로 그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각 문항번호는 Table 2와 같다.

2.2.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Skill Situation Measure'[42]를 유아의 사회적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43]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 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기관적응 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의 3개의 하위요인별로 각각 5개 문항,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하위요인별 각각 2, 1, 2 문항이 제외되어 총 10개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기관적응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규약 내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른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로 '친구와 놀잇감을 잘 나누어 가지고 논다'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 및 처리하고 변화시키며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서, '화가 무조건 날 때 스스로 적절하게 소화해 낸다'와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다. 모든 문항에 대한 척도 범주는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67~.79 값을 가지며, 친사회적 행동 전체는 .84로 나타나 조사도구가 문항간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Internal reliabil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measure

Sub-Factors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elf-awareness/ Self-expression	1, 2, 3, 4, 5, 6, 7	7	.82
Self-regulation	8, 9, 10, 11, 12, 13, 14, 15	8	.85
Recognition of others	16, 17, 19, 20, 21, 22	6	.86
Controlling others	23, 24, 25, 26, 27	5	.84
Total Emotional Intelligence		26	.90

Table 3. Internal reliability of prosocial behavior measure

Sub-Factors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chool adaptation	1, 2, 5	3	.77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on	7, 8, 9, 10	4	.79
Personal emotional regulation	11, 13, 14	3	.67
Total Prosocial Behavior		10	.84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경기도 용인시 2개소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예비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지의 적절성과 작성소요 시간 등을 알아본 결과,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에 소재한 7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를 표본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상황에 따른 감염위험의 최소화와 연구자의 거리적 편의상 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비대면 연락을 통해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며, 연구에의 자발적 참여 독려를 요청하였다. 만 3-5세 자녀가 한 명 이상일 경우 한 자녀에게만 집중하고 응답해주시기를 설명하였으며, 높은 회수율을 위해 완성한 설문지는 가능한 일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부탁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한 어머니에 한하여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30부의 설문지 패킷을 배포하고 279부를 회수하였으며, 자료로 활용하기에 불완전한 11부를 제외한 총 268부의 설문지가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 및 퍼센트를 산출하였고, 양적 변수의 경우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요인들이 조사도구로 타당하지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이 조사도구로서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 문항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요인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t-test(Independent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다섯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이 정서기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 정도

3.1.1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사회관계 신념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과 사회관계 실행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즉,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가 가지는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신념과 실행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신념에 비해 실행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2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신념과 실행의 요인별 평균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사회관계 신념 전체($F=4.310, p<.01$), 하위요인 중 나를 알고 존중하기($F=5.281, p<.01$), 더불어 생활

Table 4. Differences in social relation belief and execution factors according to mother's age

Category	Age	N	Belief			Execution		
			M(SD)	F/p	Ducan	M(SD)	F/p	Ducan
Social relation Total	<35	92	4.45(.43)	.579 /.629	-	3.87(.52)	.692 /.558	-
	35-39	136	4.39(.45)			3.86(.45)		
	40-44	38	4.43(.44)			3.93(.43)		
	45)	2	4.71(.41)			4.29(1.00)		
	Total	268	4.42(.45)			3.88(.48)		
Know me and respect me	<35	92	4.49(.51)	.513 /.673	-	3.96(1.50)	.414 /.743	-
	35-39	136	4.42(.55)			3.82(.51)		
	40-44	38	4.51(.44)			3.89(.53)		
	45)	2	4.33(.94)			4.17(1.18)		
	Total	268	4.46(.52)			3.88(.97)		
Live together	<35	92	4.61(.44)	.576 /.631	-	4.14(.43)	.360 /.782	-
	35-39	136	4.57(.45)			4.14(.47)		
	40-44	38	4.55(.46)			4.19(.44)		
	45)	2	4.92(.12)			4.42(.82)		
	Total	268	4.58(.45)			4.15(.45)		
Take an interest in society	<35	92	4.08(.60)	1.178 /.319	-	3.24(.65)	2.010 /.113	-
	35-39	136	4.00(.64)			3.35(.68)		
	40-44	38	4.13(.62)			3.44(.63)		
	45)	2	4.67(.47)			4.17(1.18)		
	Total	268	4.05(.63)			3.33(.67)		

Table 5. Differences in social relation belief and execution factors according to mother's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Category	Education Level	N	Belief			Execution		
			M(SD)	F/p	Ducan	M(SD)	F/p	Ducan
Social relation Total	High school(a)	32	4.20(.42)	4.310** /.005	a<c	3.85(.71)	1.715 /.164	-
	College(b)	70	4.38(.44)			3.78 (.40)		
	University(c)	142	4.50(.45)			3.92 (.46)		
	Master(d)	24	4.38(.43)			3.96 (.41)		
	Total	268	4.42(.45)			3.88 (.48)		
Know me and respect me	High school(a)	32	4.20(.51)	5.281** /.001	a<c	4.18 (2.45)	1.193 /.320	-
	College(b)	70	4.39(.55)			3.76 (.50)		
	University(c)	142	4.56(.48)			3.86 (.52)		
	Master(d)	24	4.39(.54)			3.94 (.57)		
	Total	268	4.46(.52)			3.88 (.97)		
Live together	High school(a)	32	4.38(.46)	3.091* /.028	a<c	3.96 (.39)	4.022** /.008	a<c,d
	College(b)	70	4.56(.43)			4.08 (.44)		
	University(c)	142	4.64(.44)			4.21 (.46)		
	Master(d)	24	4.57(.46)			4.26 (.42)		
	Total	268	4.58(.45)			4.15 (.45)		
Take an interest in society	High school(a)	32	3.85(.57)	2.504 /.060	-	3.29 (.67)	1.419 /.237	-
	College(b)	70	3.99(.60)			3.20 (.58)		
	University(c)	142	4.15(.66)			3.40 (.71)		
	Master(d)	24	3.99(.55)			3.36 (.60)		
	Total	268	4.05(.63)			3.33 (.67)		

*p<.05, **p<.01

하기($F=3.09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에 관심가지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는 어머니 학력이 4년제 대졸 4.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4.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4년제 대졸 4.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 생활하기는 4년제 대졸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4.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집단 간 사후검정 결과, 고등학교 졸업학력(a)보다 4년제 대학 졸업학력(c)의 어머니들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사회관계 영역의 실행정도에서는 하위요인 중 하나인 더불어 생활하기($F=4.02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관계 실행 전체, 나를 알고 존중하기, 사회에 관심가지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생활하기는 대학원 졸 4.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3.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력의 어머니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1.3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 정도의 요인별 평균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 사회관계 신념 전체 및 하위요인, 사회관계 실행 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여부에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에는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3.2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사회관계 영역의 신념과 실행 전체,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전체 및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사회관계 영역의 신념과 실행 전체,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의 전체 및 하위요인 대부분 모든 요인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1$), 사회관

계 신념 전체와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사회관계 영역의 실행 전체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조절능력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3.3.1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사회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행정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정서지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35.199$,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1.4%($R^2=.114$)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는 정서지능 전체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t=5.933$, $p<.0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정서지능 전체가 .30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선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에서는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43.05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3.6%($R^2=.136$)이었으며,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6.562$, $p<.0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이 .37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12.55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4.1%($R^2=.041$)이었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543$, $p<.0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기조절이 .263만큼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타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7.62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2.4%($R^2=.024$)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762$, $p<.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타인조절 및 대인관계가 .248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Differences in social relation belief and execution factors according to mother's working status

Category	Working Status	N	Belief			Execution		
			M(SD)	t	p	M(SD)	t	p
Social relation Total	working	137	4.46(.41)	1.563	.119	3.90(.43)	.882	.379
	Nonworking	131	4.38(.48)			3.85(.52)		
Know me and respect me	working	137	4.51(.48)	1.558	.120	3.88(.49)	.003	.998
	Nonworking	131	4.41(.56)			3.88(1.30)		
Live together	working	137	4.62(.43)	1.386	.167	4.20(.44)	1.664	.097
	Nonworking	131	4.54(.47)			4.11(.46)		
Take an interest in society	working	137	4.10(.61)	1.203	.230	3.34(.69)	.276	.782
	Nonworking	131	4.01(.64)			3.32(.64)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ocial relation belief, executio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				
	1	2	3	4	5	6	7	8	9	10	11
Social relation belief Total	1										
Social relation execution Total	.483**	1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342**	.383**	1							
	Self-awareness/self-expression	.373**	.408**	.717**	1						
	Self-regulation	.212**	.275**	.689**	.258**	1					
	Recognition of others	.261**	.386**	.751**	.513**	.344**	1				
	Controlling others	.167**	.075	.717**	.411**	.241**	.390**	1			
Prosocial behavior	Total	.245**	.325**	.761**	.568**	.563**	.578**	.481**	1		
	School adaptation	.220**	.271**	.615**	.513**	.317**	.436**	.524**	.770**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on	.226**	.264**	.668**	.482**	.480**	.574**	.393**	.861**	.495**	1
	Personal emotional regulation	.133*	.246**	.530**	.358**	.555**	.347**	.228**	.757**	.369**	.494**

* $p < .05$, ** $p < .01$

Table 8. Effect of mothers' belief and executions in social relation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Dependent variables	Belief				Execution			
	B β	t	Adjusted R^2	F	B β	t	Adjusted R^2	F
Total Emotional intelligence	.301	5.933***	.114	35.199***	.318	6.759***	.143	45.682***
	.342				.383			
Self-awareness /Self-expression	.376	6.562***	.136	43.056***	.387	7.290***	.163	53.141***
	.373				.408			
Self-regulation	.263	3.543***	.041	12.551***	.320	4.661***	.072	21.725***
	.212				.275			
Recognition of others	.321	4.417***	.065	19.511***	.447	6.832***	.146	46.677***
	.261				.386			
Controlling others	.248	2.762**	.024	7.626***	.105	1.234	.002	1.522
	.167				.075			

*** $p < .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정서지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45.68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4.3%($R^2=.143$)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는 정서지능 전체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t=6.759$, $p<.001$). 즉,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정서지능 전체가 .31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자기 인식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53.14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6.3%($R^2=.163$)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7.290$, $p<.001$). 즉,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기인식 및 자기 표현이 .387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21.72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7.2%($R^2=.072$)이었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4.661$,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기 조절이 .32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타인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46.67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4.6%($R^2=.146$)이었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6.832$, $p<.001$). 즉,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타인인식이 .447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타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3.3.2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사회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행정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16.99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5.7%($R^2=.057$)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t=4.122$, $p<.001$),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친사회적 행동 전체가 .271 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선 학교적응능력에서는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13.47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4.5%($R^2=.045$)이었으며,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학교적응능력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671$, $p<.0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학교적응능력이 .31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14.34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4.8%($R^2=.048$)이었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787$, $p<.001$). 이는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대인관계형성능력이 .301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개인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4.80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4%($R^2=.014$)이었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191$, $p<.05$).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개인정서조절능력이 .184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9. Effect of mothers' beliefs and executions in social relation on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Dependent variables	Belief				Execution			
	B β	t	Adjusted R^2	F	B β	t	Adjusted R^2	F
Total Prosocial behavior	.271	4.122***	.057	16.991***	.339	5.613***	.103	31.504***
	.245				.325			
School adaptation	.319	3.671***	.045	13.474***	.371	4.592***	.070	21.088***
	.220				.271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on	.301	3.787***	.048	14.341***	.330	4.460***	.066	19.896***
	.226				.264			
Personal emotional regulation	.184	2.191*	.014	4.802*	.319	4.133***	.057	17.078***
	.133				.246			

* $p<.05$, ***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 ($F=31.50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0.3% ($R^2=.103$)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t=5.613,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친사회적 행동 전체가 .339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우선 학교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 ($F=21.08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7.0% ($R^2=.070$) 이었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91, p<.05$). 즉,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학교적응능력이 .371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이었으며 ($F=19.89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6.6% ($R^2=.066$)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는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t=4.460,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대인관계형성능력이 .33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개인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이었으며 ($F=17.07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5.7% ($R^2=.057$)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는 개인정서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t=4.133,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개인정서조절능력이 .31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창의융합시대의 필수적인 인재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을 초점에 두고, 만 3-5세 유아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한 영역인 '사회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실행 수준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social relation)의 개념과 중요성,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제가 되

는 친사회적 행동,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경기도 소재 7개소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 268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하였다. 가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사회관계 역량 증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향상시키고, 자녀 양육 시 유아와의 실천적 상호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최종학력,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정도를 알아 보았다. 우선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 수준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이 낮거나 높음은 사회관계 영역에 대해 갖는 신념과 이를 실천하는 자세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연령에 따른 분석은 많은 연구들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이며 영향력 관련 보고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회관계 영역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나이로 인한 시대적·개인적 환경 차이가 자신의 존중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대한 인식과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정도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념과 실행의 평균 비교 측면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실행 평균이 신념 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천이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가지는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강한 신념의 양만큼 행위로 옮겨 낼 수 있는 태도 형성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유아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두 번째 변인으로서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정도를 알아보았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 측면에서는 학력 수준에 따라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졸 학력 수준의 어머니보다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의 어머니들이 신념적인 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시행된 「5세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 관련 선행연구[2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나를 알고 존중하기와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고졸 학력의 어머니보다 4년제 대학졸업 어머니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선행연구에 반해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학력 수준에 따른 신념의 차이가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간적 상호작용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 중심의 일상이 만연하는 현 사회 구조 속에서 상위교육기관 경험을 가진 어머니들이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자율성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가치나 태도를 중시하고, 예, 존중, 협력 등의 인성 덕목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 측면에서는 학력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변수가 실행의 자세에 제약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27]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개인의 관점 및 인식 정도가 실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위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고졸 학력의 집단보다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위교육기관 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자녀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약속과 규칙 등의 가치를 더 고려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념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가정연계프로그램에 기반 한 실천적인 지지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관계 영역 신념과 실행 정도 모두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연구목적은 가지고 진행된 연구들 [29,44]에서 나타났듯이 취업과 전업이라는 요인이 현대 사회에서 교육적 신념의 정도와 실행 수준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며, 사회관계 영역 관련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취업여부라는 개인적인 배경변인 이외에 자녀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가치 실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수를 고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사회관계 실행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 조절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목표로 하는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6,11.26-28,30]에서 밝혀졌듯이 1차적인 사회 환경이 되는 가족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있어 큰 영향력을 끼치며, 특히 부모의 양육철학, 신념 및 태도 등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 및 이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정서적인 측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개인 내적요인 이외에 외적요인, 즉 어머니를 비롯하여 유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아가 자신의 정서조절 및 공감능력을 키우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기준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실행과 유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인 타인조절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그들의 사회관계에 관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육행위를 실천하는 수준과 유아가 타인의 감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관련이 있음으로 보고된 연구[19]와는 그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다. 추후 유아의 타인조절 능력과 관련된 어머니의 사회관계 중심의 양육 행동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요인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본다. 우선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 신념과 실행은 정서지능 전체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태도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이해·조절하는 것과 더불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는 유아의 자기조

절 능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고취시킴으로써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5].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점차 부족해지고,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하는 현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유아의 정서적인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관계 영역 실행 정도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조절능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유아의 안정적인 유대감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유아가 타인의 정서에 보다 더 능숙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 양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를 예측하는 데 있어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변수로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가 사회관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지각하고, 자녀 양육에서 실천적인 적용을 할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신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여러 선행 연구들[6,11,19,20,25,26]을 지지한다. 유아는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으로 발달시킨다[46]. 즉, 어머니 변인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유의미하게 하는 여러 예측변인들 중에 하나이며[11], 유아는 이렇게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질서와 소통방식을 배워나가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회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신념과 실행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차원의 학부모 대상 대면·비대면 정보 제공 및 단기 교육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도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되돌아보며,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 수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모든 독립과 종속변인에 대해 어머니의 평가를 통해서만 측정함으로써,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대상의 심층면접, 유아 대상의 관찰 평가 등과 같이 보다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조사 방법으로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신념과 실행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현 초저출산 사회적 상황에서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은 환경 제공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셋째,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과 유아의 행동 및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성변인 선정에 따른 연구의 확장도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이 이뤄진 것으로서, 표집지역 확대 및 다양한 환경적 변수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W. Kim, H. S. Min & S. Y. Bang. (2014). The effect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using picture-books on 5-year-old children's 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4(1), 227-249.
DOI : 10.18023/kjece.2014.34.1.010
- [2] World Economy Forum. (2017). Highlights and Timing of the 2017 Davos Forum. Hyeonda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wp//www.hro.co.kr.
- [3] S. K. Kang. (2003).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 adolescents' attitu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155-180.
- [4] E. H. Lee & Y. O. Kim. (2008). *Soci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Seoul: Yangseowon.
- [5] C. Seefeldt, S. Castle & R. C. Falconer. (2009).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8th ed.)*. Upper Saddle River: Pearson Education.
- [6] S. J. Seo. (2006). A study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requestive strategies, and maternal socialization beliefs and strategies. *The Journal of Korean*

-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287-310.
- [7] H. Ko & S. M. Kim, (2014).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indergarten adaptation and happi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4), 115-136.
- [8] S. R. Lim, M. R. Joung & Y. M. Kim. (2016). Analyzing contents of social relationship activities during free choice activity time based on Nuri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6(3), 171-198.
- [9]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Commentary*.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10] Y. O. Kim. (2005). A study on kindergarte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Gwangju and Chonnam A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9(4), 81-105.
- [11] H. R. Hong, J. Y. Ha & S. J. Seo. (2008).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maternal socialization beliefs and strategies on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9(6), 14-33.
- [12] M. O'coner & J. Cuevas. (1981). Understanding motivation behind prosocial ac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9, 267-276.
- [13] L. A. Penner & H. Orom. (2014). Enduring goodness: A Person-by-Situation Perspective on Prosocial Behavior. In L.M. Padilla-Walker & G. Carlo (Eds.), *Prosocial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Approach* (pp. 55-7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4] N. Eisenberg, R. A. Fabes & T. Spinrad.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W. Damon, & R.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646-718).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15] S. J. Seo. (2006). A study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requestive strategies, and maternal socialization beliefs and strategies.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287-310.
- [16] Y. O. Kim. (2005). A study on kindergarte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Gwangju and Chonnam A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9(4), 81-105.
- [17] E. J. Cho. (2003).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7(4), 181-202.
- [18] Y. S. Lee & S. J. Seo (2006). Preschoolers' adjustment behavior-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5), 143-155.
- [19] Y. S. Jang, K. S. Kang & H. J. Kim. (2003).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4), 41-53.
- [20] H. R. Hong. (2008). *A study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abilities,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parenting beliefs related to mothers' prosociality*. Master's thesis, Kyong-Hee University, Seoul.
- [21] E. Y. Lee.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djustment in school life*. Ma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 [22] J. W. Go & H. Ryu. (2019).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on prosocial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0(4), 1253-1266.
DOI : 10.22143/HSS21.10.4.90
- [23] S. R. Park, S. H. Park & M. J. Lee. (2008). Reconsideration of the research trend for the reflection on teach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8(2), 403-422.
- [24] S. Freud. (1923). *The Ego and the Id: Standard Edition Vol 19*. London: Hogarth Press.
- [25] Y. B. Kim. (2004). *Parents' socialization beliefs as related to boys and girls' prosocial behaviors*. Ma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6] Y. B. Kim & S. Y. Park. (2005). Fathers' and mother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osocial behaviors of boys and girl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145-161.
- [27] R. S. Mills & K. H. Rubin. (1990). Parental beliefs about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28] K. H. Rubin, R. S. Mills & L. Rose-Kransor. (1989). Maternal Belief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B. Schneider, G. Attili, J.

- Nadel-Brulfert, & T. Weissberg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313-331). Holland: Kluwer.
- [29] H. S. Park & A. N. Cho. (2016). The comparative study of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and executions on the contents of social education for 5-year-old. *Journal of Open Parent Education, 8(1)*, 37-58.
- [30] S. A. Denham.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1)*, 194-201.
- [31] P. Solovey & J. D. Mayer. (1997). The Positive Psycholog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32] S. M. Bae & Y. H. Cho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ahavior-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5(3)*, 389-400.
- [33] M. H. Kang & Y. Go. (2015). Influences of multiple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according to gender and age of early childhood upon adaptation to kindergart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2(4)*, 389-411.
- [34] D. Goleman,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35] H. S. Kim.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demands for their preschoolers' mature behavior,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1)*, 159-181.
- [36] M. R. Jung & K. H. Choi. (2016). The influence of 4 to 5 year-ol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on pro-social behavior and environment-friendly attitude. *Journals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5(1)*, 29-54.
DOI : 10.21183/kjcm.2016.03.15.1.29
- [37] K. W. Han & H. W. Shin. (2009).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Effects of gender, ag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matern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5)*, 137-153.
- [38] H. S. Lee. (2006). *The effect of children's emotional perspective taking ability, social self-concep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 [39] D. J. Stipek & D. Maclver. (1989). Development change in children's asse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531-538.
- [40] J. D. Mayer & P. Salovey. (1996). The Positive Psycholog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41] B. R. Lee. (1997).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posture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Doctoral'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42] E. McGinnis & A. P. Goldstein. (1990). *Skills Treaming in Early Childhood: Teaching Prosocial Skills to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 Champaign: Research Press.
- [43] W. Y. Lee, C. O. Park & Y. H. Noh. (1993). Proposal for a social development program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3(1)*, 65-91.
- [44] A. N. Cho. (2014). Impact of parenting stress, children's environment variabl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hildren's creativity trait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4(1)*, 49-70.
- [45] M. H. Bornstein & C. S. Tamis-LeMonda. (2001). Mother-Infant Interaction. In G. Bremner & A. Fogel (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269-295).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46] W. W. Hartup.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 E. M. Hethe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조 안 나(An-Na Chol)

[정회원]



- 1999년 5월 : University of North Texas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M.Ed.)
- 2007년 8월 : University of North Texas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Ed.D.)
- 2008년 9월 ~ 2015년 2월 : 서울 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정서발달, 유아교수방법
- E-Mail : annacho@kangnam.ac.kr